

# 봄길 따라 청자축제로 오세요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백운동전시관장



올해 봄은 고맙게도 맨 먼저 강진에도 착했다. 주춤거리며 걸어오는 봄바람에 대지와 사람들이 햇볕에 쪼인 몸을 쪽늘여 기지개를 한다. 기지개는 단순히 신체적 움직임만은 아니다. 마음과 생각을 작동시키는 일이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벗어버리고 새날을 맞이하라고, 몸과 마음을 생동시키라고 강진군이 마련한 청자축제가 한창이다.

알게 모르게 입었을 내면의 상처뿐만 아니라 분리 배출할 플라스틱 쓰레기며 처박아놓은 세탁물들 등 찌들고 고달픈 일상을 밀쳐버리고 스스로 봄길이 되어 강진으로 봄나들이가보자. 청자축제는 53회나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축제다. 축제의 얼굴은 청자지만 강진의 자연, 사람, 문화가 응축되어 있다.

고려청자는 한국문화예술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우리나라 국보, 보물급 청자는 대개가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고려청자 특별전과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되어 있는데 천 년 전 장인들과 전통을 이은 현재의 장인들이 빚어낸 진품명품을 감상하는 것 자체로도 문화와 예술의 허기를 채워준다. 방문객들은 눈요기로 그치지 않고 국립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명품청자를 구매해서 집안에 장식하는 호사스러움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다. 청자가 그저 감상용이라는 일부 인식이 박혀 있는데 전시장에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기와 꽃병, 머그잔, 술잔, 접시 등 그릇들이 다양하다. 청자나 그릇들은 속이 다 비어 있다. 비움을 통해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청자축제의 진심일지도 모르겠다.

한강작가는 노벨상 수상자 소장품 기증 행사에 작은 찻잔을 기증했다. '작은 찻잔 안에 푸르스름한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 생활의 중심이었고 작은 찻잔이

자신을 글을 쓰게 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다' 라고 했는데 전시장에서 애완(愛玩)하는 찻잔을 고르거나, 푸르스름한 찻잔에 녹차 한잔 마시는 것도 축제장의 즐거움이다.

축제는 모름지기 즐겁고 감흥이 일어 야 한다. 거기에 체험과 배움이 가미되고 식도락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번 청자축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즐비하다.

무엇보다 이미 만들어진 청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내가 만드는 물레 성형, 청자파편 모자이크, 청자탁본, 청자발굴 등의 체험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축제에 식도락이 빠질 수 없다. 행사장 주변에 푸드 트럭과 음식부스들이 즐비하다. 축제장을 조금 벗어나면 마량의 해산물도 좋고 병영의 봄나물과 불고기 밥상도 푸짐하다. 음식만큼은 강진축제가 아니라 남도축제라 할만하다. 관광지에 불만족한 사람들도 강진에 와서 음식을 먹으면 그 불만이 모두 사라진다는 관광 가이드들의 말처럼 강진 음식은 맛과 다양함으로 포만감을 준다.

시골벽적인 축제장을 벗어나서 인근에 남도답사 1번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도 청자축제와 강진을 즐기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다. 마량 쪽에서 건너편의 조그만 섬들을 눈 아래 두고 만덕산 발 아래로 내려가는 일몰을 바라보고 있으면 외인 빛 바다 속으로 잊지 못할 그리움 같은 것에 빠져든다.

비 오는 강진만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면서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갈대를 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도란도란 사랑스런 얘기를 하다보면 마음이 더 없이 편안해진다. 청자의 푸른 빛과 강진만의 노을 빛이 섞인(蒼蒼靄靄)를 보거나 바다빛 비가 내리는

풍경은 강진의 색(色) 다른 여행이다. 강진 특산물을 사러 장터를 어슬렁거리다 북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월출산이 웅장하다. 바위는 솟고 땅은 꺼져서 벼랑이 더욱 깊고 수려해진 명산이다. 월출산 권역은 강진의 발코니이자 남도의 테라스이다. 입구에 고즈넉한 월남사가 있고 국립공원 경포대도 있으며 무위사도 있다. 월출산 자락에 초록의 다원은 이미 봄이

다. 녹차 밭 끝자락에 후미진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백운동 원림이 있다.

한국의대표전통정원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상향 무릉도원이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원경' 촬영지다. 백운동 원림을 들어가는 입구에 강진백운동전시관이 있다. 백운동 원림을 조성하고 은거했던 원주 이씨들의 유물과 백운동원림을 찾았던 다산 정약용, 초의선사 등의 시서화들이 전시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선비문화를 볼 수 있다.

번덕스런 겨울날씨에도 반값여행이라는 선물까지 더해져 축제장과 인근 관광지까지 북적인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 반값여행은 어려운 경기 속에도 관광객이 부담 없이 강진을 찾도록 돕고, 지속적인 방문과 소비 촉진을 통해 군민소득을 높여 잘 사는 강진군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정책" 이라면서 부담 없이 강진을 찾아주시길 당부했다. 이번 청자축제에 물리는 관광객을 보면서 "청자는 재미없다" "겨울은 축제 비수기다"라는 세간의 인식도 하기 나름 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고유한 축제자원에 의미와 가치를 담고, 관광객들이 생각지 못한 재미와 놀이들을 제공하면서 호수며니도 가볍게 해주는 축제여야 흥행하고 지속된다.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열매다. 청자축제와 연관된 사업들이 번성하고 사업체들이 강진에 자리 잡고 강진에 이사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 강진 주민들의 속셈이다. 서울에서 온 지인들이 특 내뱉는 "1박 2일도 부족하네", 라거나 "강진에 내려와서 살까?" 라는 말에 겨울을 녹여가며 청자축제를 준비하느라 애깨나 썼을 관계자들이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것 같다. 순천만 정원, 청산도 유채, 광양매화, 구례 산수유, 신안 수선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영암 벚꽃 등 삼사월에 개화(開花)를 약속한 남도의 꽃 축제가 연이어진다.

최고의 꽃은 바로 '나'라는 것을, 가장 향기로운 꽃은 우리가족이라는 것을 귀담해주시기 위해 피는, 어서 오라는 손짓이다.

## 社說

### '흥기 난동' 총기사용 때마다 논쟁 안돼

#### 흉악범 안전 검거 대안 필요해

26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소리에 잠에서 깬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날 새벽 흥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오자 신고 용의자인 50대 남성은 갑작스럽게 꺼내든 흥기로 위협했고, 경찰 얼굴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수차례 흥기를 버리라는 경고를 무시한 용의자를 향해 전기충격총(테이저)이 뒤이어 난동은 끝이 났다. 3발의 실탄에 맞고 쓰러진 용의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실탄사격 전에 제압이 이뤄졌다면 생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이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흥기를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에서 경찰의 총기사용은 '정당방위'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 역시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총기사용이 정당했는지 논란도 있다. 경찰관의 물리적 대응이 적절했더라도, 사람이 숨진 만큼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19년 흉악범에 총기사용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의 괴리감 탓에 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총기사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높다. 이번처럼 두터운 외투에 무용지물이 된 테이저건과 살상에 가까운 실탄 사용 대신 저위험 권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언(法諺)의 표현이다. 법은 멀리 있고, 코앞에 닥친 폭력 앞에 나와 사회를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정당방위다. 총기 사용을 정당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석의 폭이 좁다. 그렇다고 총기 사용 때마다 논쟁만 벌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공권력을 위협하는 흉악범 검거에 총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보다 안전한 검거가 이뤄지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부끄럽고 참담한 광주교육청 '인사논란'

#### 진실 밝혀 시민 불신 해소해야

광주시교육청이 느닷없는 '인사농단'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지역 교원·직원 단체도 26일 '광주교육청의 매관매직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교육청지부,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5개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직선 4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은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다. 공약과 관련된 지난해 목표 달성률도 100~200%에 이른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지역 교원·직원 단체는 '광주교육청의 모든 인사는 특정인으로 통한다'는 말이 시교육청 내에서 정설(正說)이라며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다. 전문직·교원 인사뿐 아니라 일반직 인사도 특정인을 통해야 하고 지난 1월1일자 서기관 승진

인사도 비선실세에 의한 대표적인 인사농단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양성과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담겠다는 광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 교육계와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육을 위해서도 인사는 교육감의 뜻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광주시민이 이정선 교육감에게 교직원 인사권을 위임한 것은 광주의 교육을 위해서지 비선실세나 매관매직을 통해 편향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육 단체의 주장처럼 '특정인에 의한 인사'가 사실이라면 광주 교육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

인사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조직이 따르고 수긍할 수 있다. 광주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자리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이 교육감은 교육단체가 주장하는 인사비리설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 진정 '새로운 광주 교육'을 원한다면 '공공연히 떠돈다는 비밀'을 낱낱이 밝혀 시민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 인터넷 전남일보 | 모바일 전남일보

### 서석대

지나해 전남산 농수산물 수출액이 7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3.3%나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다. 수출 첨병 역할을 다룬 아민 김이 해냈다. 전남산 김은 전 세계적으로 '김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년보다 46.1% 증가한 3억60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전남의 김 수출액은 지난 2010년 1000만 달러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6%로 경증 뛰어 올랐다. 김 수출 시장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전통적인 수출국에서 벗어나 캐나다, 호주, 유럽, 중동 등으로 확장하며 전남산 김의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다. 이는 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수출기업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여기에 전남도가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 지원과 혁신 품질관리 등 김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친 게 주요했다.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은 종자·생산·가공·수출 등 단계별 부가가치가 높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전국 최대 김 생산지인 전남도는 육상양식, 품종 개

발 등을 통해 김 산업을 지역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 나가기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치솟는 김의 몸값으로 인한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김 양식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른김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마른김의 원재료가 되는 물김 가격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최근 전남에서만 5000여톤이 넘는 물김이 폐기됐다. 김 생산량은 급격히 늘었는데, 가공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김은 저장성이 불가

능해 곧바로 가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산지에서 김이 남아돌면서 가격이 폭락해 결국 폐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해 김값이 치솟고 수출도 늘자 정부가 김양식장 신규 허가를 크게 늘리면서 생산량 조절에 실패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K-김'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최대 수출에도 웃지 못하고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취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